

올림픽特需의 虚와 实

李 春 權

〈全國經濟人聯合會 産業部長〉

特需를 經濟補身劑로

'88 夏期 올림픽 서울 開催는 國家的인 榮光 뿐 아니라 民族의 矜持를 세계속에 심을 수 있는 絶好의 機會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贊·反의 立場을 떠나서 이미 주사위는 우리에게 던져 졌다.

이제 차분한 마음가짐과 함께 이 세계적인 役事를 원만히 그리고 成果있게 結實을 맺는 일이 우리 國民에게 주어진 絶대 課題라 하겠다.

現 時點에서 올림픽개최가 갖다줄 得과 實을 조감하며 더 많은 得을 얻고 實을 最少化 할 수 있는 지혜의 動員과 國民의 合意가 先行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올림픽大會 그 自體는 算術的으로 計算하여 赤字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올림픽大會 개최와 관련하여 유발될 波及效果까지 計算하면 이 赤字를 메우고도 남는 큰 實益이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

다시 말해 올림픽을 國力으로 消化하고 그 여파를 營養삼아 國民經濟體內에 흡수시킬 수 있을 때 비로서 올림픽特需는 우리 經濟의 補身劑가 될 뿐 아니라 韓民族의 能力과 슬기를 萬邦에 떨칠 수 있게 될 것이다.

期待앞서 副作用막아야

올림픽을 成功的으로 치루기 위해선 막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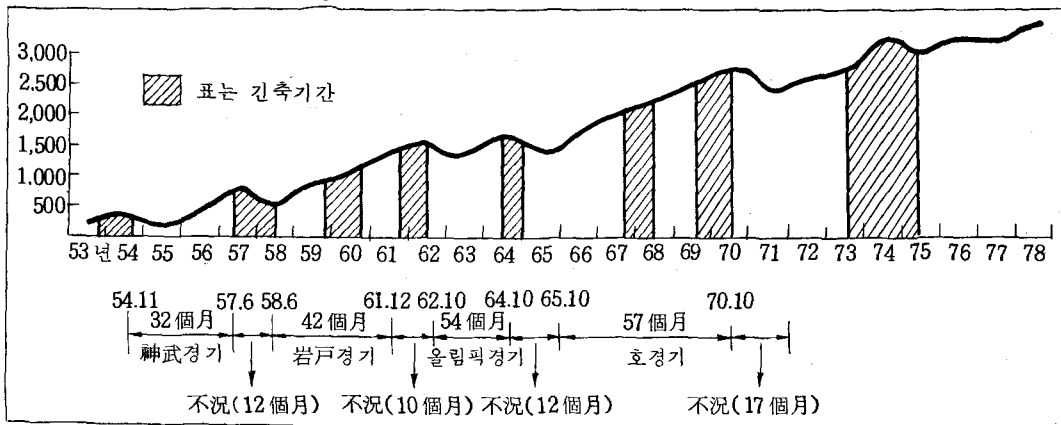
費用과 努力이 不可避하게 先行된다. 서울시는 올림픽개최 신청시 總경비를 22억8천만달러로 計上했다. 서울시측은 이 費用의 大部分이 國이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投入하기로 되어있던 經濟·社會開發費이며 大會를 유치함으로써 追加될 財源은 3억3천만달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正確한 計算을 한다면 아마도 그 이상의 비용이 먹히리라는 것쯤은 쉽게 예상된다.

때문에 막대한 費用投入에서 얻어질 效果를 計量化 할 必要가 있다. 올림픽에서 얻어지는 效果란 비단 經濟的侧面에서 뿐만 아니라 政治·社會·文化 등 전반에 걸친 期待值이고 이를 經濟에 局限시켜 보드라도 2차 3차의 波及效果도 지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진대 일단은 經濟的effect만이라도 推出, 그 得失을 따져보는 作業이 艱難하다고 하겠다. 直接的인 效果와 더불어 計量可能한 聯關波及效果를 추정해서 投入費用과 對比하고 이를 土台로 投資를 調整하거나 效果를 보다 極大化 할 수 있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64년 東京올림픽의 경우 大會를 치루는데 들인 9천8백38억円(한화 2조9천5백14억)이라는 資金規模도 엄청나지만 이 대회가 日本國民에게 미친 精神의·經濟的·社會的 또는 國際的 영향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參考할 必要가 있다.

日本은 올림픽개최를 6년앞둔 58년부터 本格的인 投資를 하기 시작 하였다. 58년에는 1조7천3백억円에 달했던 民間設備投資規模가 59



日本의 景氣순환

년에는 2조 2천억円, 60년에는 3조 1천 700억円으로 1년전에 비하여 무려 42.7%가 늘어났다.

61년에는 4조 2천 300억円에 달하는등 民間設備投資는 毎年 엄청난 規模로 커졌다. 이때 日本은 越南戰의 特需도 누리고 있었지만 올림픽을 겨냥한 設備部門이 더 큰 比重을 차지했다고 한다.

그 결과 59년 經濟成長率은 11.2%에 달했고 그후에도 毎年 10%를 넘는 高度成長을 누렸다.

특히 59년부터 61년사이의 3년동안 年平均 經濟成長率은 14.0%를 기록했다. 또한 58년부터 64년까지의 民間소비는 매년 9.2%씩 증가 이 동안을 올림픽特需期間이라고 일컫는다.

그 반면에 物價上昇도 엄청난 54년부터 60년까지는 年平均 上昇率이 1.1%에 불과했으나 60년부터 65년 사이에는 6.2%로 커졌고 특히 63년과 65년은 7.6%에 달하는 높은 上昇率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올림픽경기에 기대를 거는 것도 좋지만 이 같은 副作用을 어떻게 極少化시켜 나가느냐에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成敗는 受容태세 與否에

사실 올림픽개최는 과거의 관례로 보아 建設

需要 및 都市開發을 促進하고 이로 인한 經濟諸部門에 活性化를 유발시키는 行事로 꼽혀왔다.

이런 까닭에 올림픽 서울유치가 確定되면서 全經濟界는 물론 특히 建設關聯學界가 비상한 關心과 期待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來年부터 190조의 예산을 소요로 한 91년 까지의 第2次 國土綜合計劃과 올림픽을 열기 위한 새로운 建設수요가 겹쳐 기대치는 急上昇의 커브를 그리고 있다. 사실상 올림픽시설 規模에 따른 工事費와 이에 걸들인 都市再整備 및 交通施設 등을 감안하면 史上 유례없는 建設景氣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시설, 觀光호텔, 지하철 등 올림픽에 관계되는 시설은 침체에 빠진 建築, 土木景氣에 크나 큰 活性化 要素가 될 것이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首都圈地域의 都市計劃 推進도 앞당겨질 것이 確實시돼 상당한 建設붐이 造成되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잠실종합경기장으로 통하는 3·1 고가도로 연장노선과 可樂洞에서 板橋노선은 우선적으로 개통될 것이며 仁川, 議政府 水原 등 首都圈에 위치한 보조경기장으로 통하는 2~3個路線도 建設이 不可避하다.

地下鐵의 경우 現在 着工中인 2, 3, 4호선 以外에 87년부터 建設키로한 金浦~文來洞, 千戶洞~城南間 地下鐵과 城北~議政府, 淸涼里~八堂 등 首都圈電鐵 등도 앞당겨 着工될 것이다.

이러한 基本的인 建設計劃만으로도 올림픽 서

特別企劃

올유치가 서울을 크게 변모시키면서 建設景氣를 자극하여 全般的인 景氣浮揚으로 이끌어 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建設基礎資材인 시멘트의 需要는 刮目할 만큼 擴大될 것이며 이에 따라 現在 供給能力으로는 需要를 감당키 어려운 상황도 豫상할 수 있다.

올림픽景氣는 建設部門에서 뿐만아니라 電子, 通信, 觀光施設, 서어비스, 食料品産業에 이르기 까지 廣範圍하게 直接 波及된다.

올림픽을 契機삼아 보다 活性化될 産業部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電子産業에 있어서는 VTR, VDP 등 高度技術을 요하는 電子製品의 生産販賣가 本格化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정보처리, 自動제어장치, 방송중계 등의 전자핵심 正밀기술과 關聯技術이 급속히 발전하고 生産 擴大될 것으로 기대 되어진다.

競技施設, 호텔, 지하철 등의 건축이 활발해 짐에 따라 철근, 철구조물, 강관 등의 需要도 크게 늘어날 것이며 자동차産業은 小型車生産爲主에

서 中型車生産을 병행, 生産패턴이 변화될 것이다.

스포츠用具産業도 脚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포츠用具 제조업체는 약 150 여개를 헤아리는데 그중 10 個内外를 제외하고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들 업체의 질적인 育成方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함께 新製品의 開發, 既存製品의 高級化와 擴大供給 등으로 內需基盤에서 輸出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기념메달, 뱃지 등 올림픽 관련 기념품과 古有的 民藝品·土産品·衣類·學用品 등도 올림픽 축제무드를 타고 적잖은 需要가 創出될 것으로 豫상되는데 이 部門에선 우리나라를 代表할 수 있는 尙品商品을 개발, 세계시장에 진출시키는 好機로 삼을만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올림픽을 수출시장의 새로운 전기로 活用할 수도 있어 尙 産業界는 새商品개발과 함께 品質改善을 통한 商品高級化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람이 잘산다는 것은 물질생활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정신생활과 공동생활의 안녕이 물질생활의 개선과 함께있을 때 비로서 잘산다는 목표는 진정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구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隣保協同하며 인정이 넘치는 공동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화기찬 勞使關係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全斗煥大統領 全國새마을 指導者大會(81. 12. 9)에서

日本은 올림픽을 계기로 國民生活의 엄청난 변모를 초래했다. 우선 産業構造面에서 製造業, 建設業, 서서비스業의 比重을 크게 높여 놓았고 國民生活面에서는 57年 不過 8%였던 TV와 냉장고 보급률이 올림픽 다음해인 65년엔 90%와 66%로 각각 높아졌으며 전기세탁기도 57년 20% 보급률이 73%로 높아졌다.

大量消費와 求人難時代가 병행되는 올림픽特需은 日本經濟의 成長潛在力을 完全 稼動시켰으며 企業은 이를 輸出의 絶대 好機로 삼아 부단한 技術革新을 도모함으로써 日製自動車, 電子製品 등이 오늘날 國際競争力面에서 단연 首位를 占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올림픽개최지가 모두 올림픽特需을 만끽 經濟의 번영을 가져온것은 아니다. 뮌헨과 몬트리올市는 아직도 過剩施設과 投資浪費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으며 모스크바는 격심한 인플레이의 휴유증에 빠져 있는 등 시련을 겪고 있다. 이처럼 대조적인 올림픽의 뒷 樣相을 감안해 볼때 결국 올림픽개최의 成敗는 현실에 맞는 국민적차원의 수용태세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終局의 課題는 先進의 기틀化

올림픽개최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것이 特需景氣가 물고 올지도 모를 이른바 올림픽 인플레이다. 일반적으로 따져보더라도 一時에 세계적인 行事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종목별 대형경기장·선수촌은 물론 觀光客 수용을 위한 숙박시설과 교통·체신 등의 間接施設 強化를 위해 막대한 고정투자비를 투입해야 하며 또 대회운영·관리를 위한 경비지출도 엄청나 올림픽 전후의 財政收支만을 추정할 경우 赤字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狀況이라고 하겠다.

이와함께 짧은 올림픽期間중의 過熱需要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부문에서의 設備投資와 特殊景氣에 들뜬 다음의 心理的 公황까지 고려한다면 올림픽 이후의 經濟에 짧은 주름살이 우려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회經費 22억달러로 必要한 直·間接 시설

을 갖추 수 있느냐도 심각히 따져 볼 必要가 있겠다. 대부분의 견해로는 우리경제의 潛在力으로 올림픽개최는 무난하다고 하나 22억달러의 지출만으로도 政府事業의 投資優先順位를 再調整, 5次5個年計劃 등을 수정할 必要가 있으며 경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 자칫하면 經濟構造自體를 왜곡시키는 副作用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또한 投資財源과 大會進行費用 조달이 순조롭지 못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으며 굳이 赤字財政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豫算팽창으로 인한 財政인플레이의 誘發도 우려될 수 있는 부정적 要因중의 하나다. 결국 이와같은 부정적測面을 긍정적要素들과 어떻게 상쇄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선의 급선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올림픽 特需을 先進經濟의 디딤돌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終局의 課題일 것 같다. 올림픽 特需景氣의 혜택을 最大限 모든 國民에게 고르게 分配되도록 誘導되어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둘 일이다.

特定企業 혹은 特定階層이 特需을 독차지 향유하거나 誤用하는 일은 國民經濟發展을 위해서도 극히 바람직 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가령 過熱景氣에 편승, 投機를 재연시켜 利得을 본다거나 非生産的인 要素로 不當한 得을 보는 企業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를 豫防할 수 있는 철저한 對策이 事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준비초기단계서 부터 차근차근히 찾아내 미리 배제할 수 있도록 신중한 자세를 가다듬는 한편 올림픽特需의 虛와 實에 적절히 對應할 수 있는 機能도 갖추어야 할 時點에 서 있다.

東京大會에서 선수촌에 供給될 水道물이 IOC의 嚴格한 수질검사에 불합격, 美國으로부터 輸入 使用했다는 사실은 모든 부문에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事例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는 유치성공의 벽찬 감격 이상으로 벽차고 힘난한 課題를 우리 國民全體에게 안겨 주었다고 하겠다.♣♣♣